

다산포럼



김한영
지식 칼럼니스트
데일리인베스트 대기자

어느 우스개에 따르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플레이보이'의 공통점은 '그림의 떡'이다. 두 잡지에 나오는 사진들과 실물을 접할 일이 없다는 뜻.

패권을 '그림의 떡'으로 치부할 수 없다. 단군 이래 패권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진 고조선과 고구려는 사라졌다. 신라는 패권을 꿈꾸는 나라였다. 신라인은 진흥왕 14년(553년)에 건립한 환동사 9층 목탑에 주변 아홉 나라를 제압한다는 연원을 담았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패권의 꿈이 생겼다. 단재 신채호가 말한 일천년래 대사건(一千年來大事件)의 주인공인 12세기 승려 묘청은 천도하면 '36방의 주변국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길산과 관련한 조선왕조실록 속주 23년(1674) 기사에도 "우리나라를 평정하여 정성(鄭姓)을 왕으로 세운 뒤에 중국을 공격하여 최성(崔姓)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무모한 사람들이 나온다. 효종(1619~1659)의 북벌론 또한 패권의 문제였다.

현대사에서도 패권은 우리 화두다. 지정학적으로 주

한·미 공동패권론

변 열강 4개국이 모두 패권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앞설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이 언젠가는 패권국(hegemon)이 된다'에 베풀하는 사람도 많다. 소련은 냉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패권국 자리를 노렸다.

1983년 소련이 우리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객 269명이 전원 사망했다. 그때 TV 뉴스에 나온 국민의 분노가 지금도 생생하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도 초강대국이 되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시 분노를 승화한 비결 중 하나는 '곧 선진국이 된다'는 희망이 있었는지 모른다. 선진국이 된 지금은 패권에 눈 떠야 한다. 허무맹랑하지 않다. '꿈은 이뤄진다'는 축구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진리다. 꿈을 놓치면 나쁜 결과가 기다린다.

일본이 그런 경우일까. 에즈라 보걸의 책 '세계 최고의 일본(Japan as Number One)' (1978)이 상징하는, 당시 잘나가던 일본의 미국 추월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미·일 '공동패권(bigemony)'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기회를 놓친 일본은 상당수 분야에서 한국에 뒤지는 처지가 됐다.

모든 일은 예언된다. 틀린 예언자와 맞는 예언자가 있을 뿐.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 사세히(謝世輝)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고 한국이 지게 되는 이유' (1986)에서 2010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고 예측했다. 그의 예측은 약간 다르게 실현되고 있다. 2023년 US 뉴스가 보도한 세계 국력 랭킹에서 한국은 미국·중

국·러시아·독일·영국에 이어 6위였다. 7위 프랑스와 8위 일본을 앞섰다. 한국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패권과 밀접했다.

G2 관계에서 패권은 '기피' 단어다. 패권을 대신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 '국제 질서'를, 중국은 '중국의 꿈' '신형국제관계' '일대일로'를 쓴다. 그런데 패권에 대한 G2의 동상이몽이 문제다. 또 패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전임자들과 다르다는 게 문제다. 미국의 패권은 미국의 희생과 봉사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패권국이 받는다(타커)가 되려면 주는자(giver)가 돼야 한다는 이치를 무시한다. '중국은 이미 망했다'고 보기엔 중국의 패권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문화적 영향력·우월성과 역사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속국' 한국은 대국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해왔다는 논리로 무장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중국의 모든 것을 도둑질한다고 분노한다. 문화적 패권을 중시하는 그들은 그래서 문화 한류의 성공이 불변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패권은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영화나 인공지능 같은 특정 분야에서 공동패권을 추구해보자.

서구화는 공맹지도(孔孟之道)를 추구하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무시한 잘못을 반복할 수 없다.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화두가 똑같이 들리는 풍중일어(夢中一如)의 정신으로 국력 상승을 위해 노력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기고

기자의 눈으로 본 '기रो에 선 세계'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기रो에 선 세계'. 이 겨울, 우리가 겪어내는 이 세계를 축약한 말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어디 올 겨울 뿐인가. 돌이켜보면 세계는 언제나 기रो에 서 있었다. 역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생사의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내던져진 채 우리는 오늘에 이르렀다.

'기로에 선 세계'는 또한 힌츠페터국제보도상 대상의 이름이기도 하다. 죽음의 기로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의식을 놓치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고 워르겐 힌츠페터(1937~2016)의 정신을 기리고 5·18민주화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1년에 제정된 국내 최초의 국제보도상. 그 대상인 2024 힌츠페터국제보도상 대상 기로에 선 세계상 수상자 전시회 및 상영회가 지금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기로에 선 세계상'은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 (Voices from Gaza)'에게 돌아갔다. 이스라엘·팔레

스타인 전쟁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펼치는 '가자의 응급 구조대(1번)'와 9살 소녀 엘라즈의 시각으로 본 전쟁의 참상을 담은 '가자의 어린 목격자(2번)'로 구성된 보도 다큐이다.

'가자의 어린 목격자'의 첫 장면은 심야의 포탄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포탄이 터지자 어린 소녀의 외마디 비명이 울린다. "오, 제발..." 소녀의 어머니는 창문에 커튼을 친다. 그리고 소녀와 어머니의 대화가 이어진다.

"밤이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견뎌내는 수밖에 없단다."

한 달 전 마을로 떨어지는 폭탄의 세례에 세 번이나 죽을 뻔했던 소녀는 포연에 갇혀 숨쉬기조차 어려웠다고 고백한다. 밥을 먹으러 가는 중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자 마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이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낸 이들은 모하메드 사와프, 살라 알 하우, 이브라힘 알 오울라, 고(故)마르완 알 사와프 등 가자지구의 영상기자들이다.

그 중 마르완 알 사와프 기자는 취재 중 이스라엘 폭격으로 부모, 형제자매, 조카딸을 포함 47명의 가족을 잃고 심한 부상을 입었다. 엄청난 슬픔 속에 카메라를 들고 참상을 기록하다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하였다.

뉴스상을 수상한 '지금 가자에선(Inside the Gaza

Siege)'은 유세프 함마쉬가 촬영한 것으로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취재진을 대신해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중요한 보도가 됐다. 충격적인 장면은 가까스로 구조한 어린아이들 엄마 품에 전해주려 할 때 어머니가 너무 놀라 소크로 사망하는 장면이다. 잦은 정전과 통신장애로 영상 전송에 어려움을 겪으며 휴대폰으로 기사를 썼다고 한다. 이 뉴스는 영국 의 채널4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사이드 이란: 자유를 위한 투쟁(Inside Iran: The Fight for Freedom)'- 게스빈 모하마드, 하페즈, 네치르반 만도, 로빈 반엘이 제작한 특집상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 이란 하잡 시위의 기록을 통해 여성 인권탄압 현장과 그 적나라한 아픔에 직면해볼 수 있다.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베트남 전쟁의 참혹성을 널리 알리고 영상보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한 보수. 고 딘 폭 레, 고 알렌 다운스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영상기록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3월 30일까지다.

거짓에 포아리를 틀고, 불안과 선동을 생산해내는 극우 유투버들이 손쉽게 거액을 챙긴다는 혼돈의 시대다. 그래서일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작이 주는 울림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깊다. 목숨을 걸고 제작된 이 보도물들은 '인간을 놓치지 않는 데 언론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프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고

봄에 대한 단상(斷想)



이동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금년 2월 3일은 절기상으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다. 입춘이 지나면 얼음설한의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고 기다리던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계절의 감각이 흐려진 느낌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도 없다. 추운 겨울이 지나야 새 생명의 봄이 오듯이 세상만사는 먼저 절망과 죽음의 밤을 지나야 희망과 생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대자연의 이법(理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봄은 희망이며 그리움이다. 인생으로 말하면 유소년이나 청소년기라고 할까? 아무튼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활기를 찾아가는 계절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나무는 위로 자란 것만큼 그 뿌리도 깊이 자란다. 봄꽃은 순식간에 피는 것 같지만 참 오랫동안 준비한다.

하얀 눈 밑에서도 파란 보리가 자라다 숲의 온갖 아픔 속에서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익어간다. 꽃을 피우고 싶어서 온 몸이 가려운 매화 가지에도 잔설의 등

토 속에서 가슴을 활짝 열고 다소곳이 고개 드는 복수초에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봄은 사랑과 평화의 계절이다. 남쪽에서는 매화가 피기 시작한다. 봄은 많은 것을 보라고 해서 봄이라고 하는데 올봄엔 새로운 꽃들을 많이 보면서 창조주에게 감사하며 자연을 마음껏 만끽했으면 좋겠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있다. 봄이 왔으나 봄을 느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 사회의 탓인 경우가 많으니 이 말은 자연이 변화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연은 이름처럼 제 소임을 다 하듯이 변화해야 할 때 어김없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철부지'라고 이르며 분발할 것을 조언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봄을 느끼는 것일까? 사랑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담 가운데 하나는 뜻밖에도 우리말 속에 담겨있는 것 같다. 우리말 중 소리의 아름다움으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계절을 이르는 말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천천히 말해보면 싱그러움이 가득하다. 게다가 계절에 맞는 뜻도 품고 있다. 그렇다. 봄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겨우내 웅크려있던 자연이 기지개를 펴며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봄꽃 같은 사람들이 삶의 전령사 되어 서로서로 손잡고 힘차게 일어서는 모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

다. 인간의 봄도 마찬가지다. 오랜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지난 세월을 보낸 사람은 치유의 봄날을 기다리는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갈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허술함을 노출시키면서 세월의 늪에 살아가고 있다. 점점 희미한 영혼의 색깔로 물들고 있으며 육망의 파도는 더욱 거센 몰살에 부수지면서 흩어지고 무기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길지 않은 세월동안 다진 그 인연만은 봄꽃처럼 화사하게 웃음지으며 경건하게 마음속에 꽂꽂둬 어둠과 같다.

나이가 들어간 사람이 더욱 그리워지고 건강만이 최고의 재산이란 것을 느낀다. 하루하루 정신 없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온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종종 있다. 생각해 보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잠시 멈추면 없 없는 분주함 속에 놓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도리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조급해지면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잠긴다.

봄은 희망, 사랑, 평화, 생동하는 계절이다. 온 국민이 봄의 전령사 되어 희망을 속삭이는 계절에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과 활기찬 계절의 소리를 들으며 봄을 기다리고 있다. 어수선한 정국에서 불안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이 새봄을 맞아 동토의 잔설에서 피어나는 복수초처럼 곳곳하게 희망의 꽃을 피워 가면 좋겠다.

社說

광천상무선 조기 착공에 행정력 모아야

광주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광천상무선'이 추진된다.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천상무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گیا자동차, 종합버스터미널, 더현대 광주, گیا 챔피언스필드를 거쳐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7.78km 구간이다.

광천상무선 건설이 절실한 이유는 광주 신세계와 더현대광주로 이어지는 복합쇼핑몰 지구의 교통난 해소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 타당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광천상무선이 광주에서 대중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노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

근 광천상무선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주민 의견 수렴과 광주시의회 의결을 들은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 SOC사업의 성공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이에 따른 국비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천상무선은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총사업비 6925억원 가운데 60%를 국비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0%도 두 곳의 복합쇼핑몰 건립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공공기여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된다. 광주시의 계획대로 올 상반기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선 정치권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광천상무선은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민선 8기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추진중인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조기 착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안공항 재개보다 안전 개선이 먼저다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공항이 잠정 폐쇄되면서 지역민들이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여행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렇듯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항의 운항 재개보다는 이번 기회에 모든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행업계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고수습과 조류 퇴치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뒤 차분히 무안공항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전남도의 방침은 안전을 중시한 행정으로 판단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방송사 인터뷰에서 "무안국제공항은 로컬라이저나 새 때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므로 10월까지의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사고 원인 조사, 로컬라이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속도가 있는 만큼 안전시설을 최대한 개선·확충해 공항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로, 속도보다는 공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애초 오는 4월 18일 새벽 5시 까지 무안공항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5월까지 사고 수습과 활주로 정리, 이후 8월까지 활주로 항행안전등 보수를 거쳐 활주로 연장 공사를 준공해 계기착륙시설 설치를 9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10월부터는 항공기 운항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것으로 검토됐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동절기 지역 여행사들의 해외 여행객 모객을 위해서 10월부터는 운항이 재개되길 바라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전남도는 애초 계획대로 공항 안전 개선 및 정상화 조치를 끝내고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無等鼓

피막은 '고막합(庫莫蛤)'이 변한 말이라는 게 정설이다. 여기서 고막은 '작은 집에 사는 것'을 뜻하고, 합은 조개를 일컫는 한자다. '작은 조개'라는 의미의 '고막'과 '피막'으로 혼용돼 사용하다 고막이 표준어로 등록됐다. 하지만 최대 생산자인 보성 등지에서 피막으로 불려왔고, 고막이라는 기존 표준어는 잘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고막과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지금은 피막이 정식 이름으로 등재됐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피막 종류는 참피막, 새피막, 피조개,

피조개는 우리나라 새피막과 방식류 개수가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데 새피막에 비해 숭늉이 많고 갈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구해낸 피막 중에 4cm 이상인 것들이 섞여 있었다면 국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고 있자면, 피막 구분하기만큼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보수와 진보, 좌우 혼돈의 정국에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뉴스가 섞인 상황에서 면밀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김대성 제2서회부장 bigkim@

고막 정국

참피막과 새피막은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참피막과 새피막, 새피막과 큰이랑피조개를 판별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피막은 패각(껍데기) 표면의 숭늉 여부와 새겨진 부챗살 모양의 굴인 방식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한다. 참피막은 17~18개 정도이고 표면에 숭늉이 있는 새피막은 30~34개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지금은 피막이 정식 이름으로 등재됐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피막 종류는 참피막, 새피막, 피조개, 큰이랑피조개 등 네 가지 정도다. 참피막은 고막 중에서 가장 작지만

피조개는 우리나라 새피막과 방식류 개수가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데 새

피막에 비해 숭늉이 많고 갈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구해낸 피막 중에 4cm 이상인 것들이 섞여 있었다면 국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고 있자면, 피막 구분하기만큼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보수와 진보, 좌우 혼돈의 정국에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뉴스가 섞인

상황에서 면밀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김대성 제2서회부장 big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예 행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서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